2026년도
교수회 기획세미나

일시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1시

장소 부산캠퍼스 교수회관 2층

부산대학교 교수회

2026년도 교수회 기획세미나

목 차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학교 선정과 향후 과제

Ⅰ. 개회

01 참석자 등록 및 중식 제공 ..... 11:00 ~ 11:30

02 개회 및 행사 안내 ..... 11:30 ~ 11:35

03 인사말 ..... 11:35 ~ 11:40

Ⅱ. 주제 발제

04 인문학 분야 발제 ..... 11:40 ~ 11:55

손남훈 교수 · 국어국문학과

05 사회과학 분야 발제 ..... 11:55 ~ 12:10

이동훈 교수 · 사회과학연구원장

06 자연과학 분야 발제 ..... 12:10 ~ 12:25

유인권 교수 · 물리학과

07 교수회 발제 ..... 12:25 ~ 12:40

권 강 · 기획홍보위원장

Ⅲ. 토론

08 대학본부 의견 및 토론 ..... 12:40 ~ 12:55

이동근 · 산단장

09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12:55 ~ 13:20

Ⅳ. 폐회

10 주요 논의 정리 및 폐회 ..... 13:20 ~ 13:30

부산대학교 교수회

인문학 분야 발제

• • •

손남훈 교수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의 토대 확립과 발전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이후
부산대학교의 과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손남훈



1. 대학의 발전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재정 확대를 학문 전체의 발전으로

사업 선정의 기대와 우려

교육·연구 여건 개선의 기회. 산업 연계 성과에 지원과 평가가 집중될 가능성

학문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기준의 문제

인문대학의 예산 규모와 함께,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이미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조건부터 점검

연구비 집행, 강의 개설, 연구소 운영, 학문후속세대의 진로 개선

2. AI 활용의 요구와 비판적 성찰의 자리

AI 글쓰기의 완성도와 학생의 학습 수준

매끄러운 결과물만으로 학습을 판단할 수 있는가

자료 읽기, 이해의 재검토, 판단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의 확인

비판과 반성도 AI 교육의 핵심 의제

활용의 방향과 의미를 검토할 자리 확보. 비판을 사업의 장애물로 보는 태도 경계

인문학의 기획 단계 참여

철학·윤리학, 언어·문학, 역사·문화 연구자가 교육과 사업의 방향 설정에 참여

03

2. AI 활용의 요구와 비판적 성찰의 자리

활용의 조건과 독립적인 연구 지원

대학이 제시한 교육 방향에 상응하는 지원

AI 계정과 비용 지원, 수업별 적합성 검토, 활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AI와 연결되지 않는 연구의 가치 인정

문헌 독해·번역,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탐구, 텍스트 바깥의 경험 복원 지속

인문사회 연구 지원의 확대

축소된 연구활성화 지원사업의 강화와 강사의 연구 지원책 마련

04

3. ‘학문씨앗’은 어떠한 연구를 성장시키는가

자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연구

‘PNU 학문씨앗 30’의 의의

연구자의 질문을 우선하고, 정량적 성과의 압박과 실패 가능성을 재검토

규모의 확대를 성장의 기준으로 삼을 때의 한계

연구모임·클러스터·연구소·대형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연구도 존재

개인 연구와 공동연구의 동등한 인정

오랜 자료 검토와 해석을 거쳐 완성하는 연구서 한 권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

05

3. ‘학문씨앗’은 어떠한 연구를 성장시키는가

느린 연구를 지속시키는 지원 경로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기존 학문의 심화·계승

정본 마련, 신뢰할 수 있는 번역, 자료 정리 등 후속 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성과 인정

탐색 지원 이후의 장기 지원

1~2년의 지원이 끝난 뒤 단기 성과 경쟁으로 복귀하지 않을 후속 경로 마련

공모 선정 여부와 무관한 기본 연구 환경

미선정 연구자의 자료 접근과 연구 지속 보장. 자생적 학문 재정의 규모·지속성 확보

06

4.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공의 깊이를 담아낼 이수 체계

126학점

인문대학 다수 학과의 졸업 이수학점

교양·전공·융합 및 연계 교육을 함께 담는 현재 체계의 적절성 검토

전공 학습의 경로 점검

이론·연구 방법·원전 독해·심화 학습의 충분성

새로운 교육제도의 영향 검토

펜토미노·브릿지, 융합전공 등 기존 전공교육의 관계

전공·졸업 이수학점 조정 논의

학과별 교육 필요를 확인한 뒤 조정 검토

07

4.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독서·토론·글쓰기 수업의 운영 여건

AI 시대의 글쓰기 교육 강화

학생의 독해·논거 확인과 글 수정 지도에 필요한 시간 확보

수강 인원 감축과 분반 확대

교수자의 교육 역량이 학생에게 충분히 전달될 여건 마련

역할에 상응하는 지원

대학 전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인문대학에 인력·공간·예산 제공



08

4.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강의 개설과 글쓰기 교육의 제도 점검

전임교원·강사 강의 개설 조건 재검토

같은 시간 개설, 전임교원 담당 여부와 연동된 개설 제약의 교육적 필요 재검토

지표가 실제 교육 여건에 미치는 영향 점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강의 개설의 어려움·공간 부족을 함께 검토

전공별 글쓰기와 교양교육의 공동 설계

공학작문 등을 포함하여 글쓰기의 공통 목표·수준과 각 전공의 요구를 함께 점검

09

5.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소, 연구행정의 문제

대학원 진학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망

대학원 재학 중의 생활과 연구 지원

등록금 외 생활비·자료 조사비, 학술 교류, 적절한 보수를 받는 연구 참여

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교육 경로

강의 기회 확대와 연구소 연계. 불안정한 시간강의 의존을 줄일 조건 마련

학부부터 대학원까지의 연결 점검

강의 기회 감소와 대학원생 감소의 관계 검토. 학부 모집 인원 확대 가능성도 논의

10

5.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소, 연구행정의 문제

기존 연구소의 기반과 운영 내실

자료와 연구 역량의 축적 현황 확인

인문학·한국민족문화·여성·영화·일본·중국·점필재연구소 등 기존 기관 점검

교수와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기반으로 기능

개인의 헌신과 한시적 사업비에 의존하는 운영 조건의 개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자료 관리

성과 공개와 홈페이지 관리, 자료의 보존·접근을 책임질 인력과 예산 확보

11

5.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소, 연구행정의 문제

연구의 실제를 반영하는 연구행정

필요한 연구비가 적절히 쓰일 수 있는 기준

복합기 구입비 반납 경험을 통해 본 연구 필요와 집행 기준 사이의 간극

같은 사안에 대한 일관된 안내

해외 강연자 초청 서류 등 부서별 판단 차이의 적용 근거 확인과 통일된 안내

반복되는 불편의 제도적 검토

연구자·실무자 공동 검토. 교내 개선 가능 절차와 외부 기관에 요구할 규정 구분

12

6. 지역의 경험을 학문적 자산으로 축적하는 일

지역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지식이 되도록

부산과 주변 지역의 경험을 조사·기록·해석

이주와 정착, 피란과 전쟁, 산업화와 노동, 해양과 생태, 지역의 언어·문학·생활문화

자료의 수집·정리·접근을 위한 장기 기반

관리 인력 확보, 기존 연구소 성과 연결, 대학원생·신진연구자의 참여

세계에 대한 연구와 지역에 대한 책임의 결합

세계의 언어·문학·역사·철학 연구를 통해 지역의 경험을 비교하고 해석할 시야 확보

13

7. 인문학의 중요성을 말한 이후에 해야 할 일

재정과 의사결정, 실행 일정의 구체화

기초학문을 지속할 재정적 기반의 명시

사업비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대학 전체 재정에서 책임질 부분 결정

발전계획과 주요 사업의 기획·평가 참여

인문학 분야가 지원의 기준 자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담당 부서와 검토 일정의 지정

교육 운영, 후속세대 지원, 연구소 기반, 연구행정의 개선 과제를 실제 절차로 연결

14

인문학의 중요성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느린 연구를 존중한다면,
그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가.

독서와 토론을 강조한다면,
수업을 운영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겠다면,
연구를 지속할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가.



사회과학 분야 발제

• • •

이동훈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부산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이동훈

01 도입

[속보]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5년간 3900억 지원

부산대 조선 · 해양, 전남대 첨단 반도체, 충남대 산업 · 연구인력 양성

장재훈 기자 업데이트 2026.09.01 17:44 | 댓글 0

[속보] ‘서울대 10개’ 부산대·충남대·전남대 3개교 선정… 대학당 700억씩 지원

A 주지영 기자 | 입력 2026.09.01 17:00 | 댓글 0 | 요약

교육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3개교 선정 결과 발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 2030년까지 5년간 지원
‘성장엔진·AI분야’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
제조·해양산업, 첨단반도체 등 지역특성 반영한 계획
대학·지방정부·민간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01 도입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성장엔진·시거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부산대학교, 세계의 중심이 되다
부산대학교
미국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중국
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북극해

01 도입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S등급
사업비 422억 원 확보
부산대 등 부산지역
「앵커사업(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S등급
「대한민국 성장엔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5년간 총 5,000억 원 이상 확보
부산대 2026 정부 재정지원사업
최우수 3관왕 달성

02 부산대학교 S-10 사업

- **부산대학교 S-10 사업의 목표:**

「제조·해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선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실행 플랫폼」

- 세계 100위권 단과대학을 목표로 한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
-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 구축
- 2027년 3월 출범 예정인 AI대학 설립
-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연구성과 확산

-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2028년 3월 신설예정)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 첨단기계시스템학부, 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제조·해양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
-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2026년 11월 설립 예정): '기업이 묻고, 대학이 해결하는' 개방형 산학일체형 연구플랫폼으로 조성
- AI대학((2027년 3월 설립 예정)은 AI컴퓨터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산업공학부, AX융합학부 등 4개 학부와 AI 특화 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AX 특화 대학원 등 3개 대학원 체제로 운영...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사업인가?

03 S-10 사업의 배경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소멸 막을 유일한 대안

"전국의 주요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워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하자"

캘리포니아대학체제와 국가거점국립대학 예산 비교(2020년 기준)

	국가거점국립대학 10개(서울대 포함)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10개 대학
예산	5조 7,031억 원	54조 80억 원(416억 달러)
교원 수	1만653명	2만4,400명
학부생	22만2,757명	22만6,449명
대학원	5만1,437명	5만9,413명
노벨상 수상자	0명	64명

03 S-10 사업의 배경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지역 거점국립대에 그동안 소홀했던 지원을 이제야 몰아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대학 서열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추진된 사업**

03 S-10 사업의 배경

- 어떤 정책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성과 여부를 따져 정책의 지속적 추진 여부가 결정됨.



대학도 안 가보고 무슨 기준으로 뽑았나…국회 '서울대 10개' 질타

[2026 국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서 여야 한 목소리

실사 없이 3주만에 선정…공정성 논란
경북대·전북대 등 6개교 추가선정 촉구

사회 : 교육

'서울대 10개' 5000억 투입 국립대, 감사는 10년에 1번? "감사 의무화 필요"

중앙일보 | 입력 2026.10.23 11: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이보람 기자 구독

04 부산대 S-10 사업의 제고

- 대학본부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펴,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부울경 지역을 소멸의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구원투수로서 부산대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 **부산대학교 S-10 사업의 목표:**

「제조·해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선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실행 플랫폼」

- **세계 100위권 단과대학**을 목표로 한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
-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 구축
- 2027년 3월 출범 예정인 AI대학 설립
-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연구성과 확산

이 사업으로 과연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부울경 지역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04 제언

- 현재 지역이 겪고 있는 소멸 위기는 단순히 제조업이나 첨단 기술 부족 때문만이 아님.
- 인구 유출, 고령화, 청년층의 정주 여건 악화, 지방 행정·교육·복지 시스템의 공백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
- 아무리 뛰어난 AI나 첨단 제조업 기술(AX)이 도입된다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의 인식, 노동 시장의 변화, 지역 기업과 지자체·대학 간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지역 사회의 재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듦.

04 제언

- 사회과학은 첨단 기술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기술 혁신이 소외 계층 갈등이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설계를 담당하는 학문.
-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문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매력적인 지역 정체성'이 구축되어야 함.
- 문화, 교육, 복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임.
- 부산대학교가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몇몇 공과 계열의 성과를 넘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량을 함께 결집하고 융합하는 통합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임.

04 제언

- **설명회 개최 및 구성원 동의 필수**
  - 대학 본부는 하루 바삐 S-10 사업 뿐만 아니라, 국립대 육성사업, 앵커사업 등 국가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을 학내 구성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반드시 학내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구해야 함.
-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몇몇 특정 공과 계열 중심의 편향된 기술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산대의 모든 학문 분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사업의 국가적 중대성 인식**
  - S-10 사업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해결책으로 추진되는 국가 핵심 정책이므로, 결코 특정 단과 대학이 단독으로 책임질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임.
- **소통 및 태도 전향 촉구**
  - S-10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학내 구성원을 사업의 주체로 대우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는 대학본부의 태도 전향을 강력히 촉구함.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과학 분야 발제

• • •

유인권 교수

물리학과



가능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할까?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유인권

v2025-09-18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신의 한 수

- 교육지옥 해체 → 진짜? 서울대!가 많아지니까? 변별력은 필요 없다? 대학서열화가 없어질까? 전공(의대)서열화는?
-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진짜? 지방에 내려오려 할까? 벗꽃순서로 몰리면? 지역활성화와 대학활성화의 닭과 달걀문제?
- 한국형 실리콘밸리 10개 만들기: 4차 산업혁명으로의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지역이 발전. → 흠.. 실리콘밸리 1개라도 있나? 한국에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이 있나?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인가? IST?
-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 → 의대정원? 기초의료? 국립의대?
- 사교육비 해소(29조, 2024년) → 입시문제 해결? 대학무상등록금이 진짜 중요문제?
- 부동산 문제 해결
- 대한민국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신의 한수
-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이제 한국 사회가 결단할 때가 왔다.

김종명 교수 (경희대) '서울대10개만들기' 중 발췌

생각처럼 되기만 한다면야!

정말 될까?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WHAT & HOW to solve ?

- 교육지옥 원인? <= 서열 '문화' <= '희소성' '수월성' <= 안정적 미래 <= 안정적 고수익 (의사) <= 사회(경제)구조
- 수도권 집중 (사람은 서울로!)? <= (삶이) 열악한 지방 <= 지역인프라 (교육, 의료)
- 대학교육의 목적?
  - ➡ 전문교육? 전문직 > 안정적 고수익? ➜ 대학원과정 ➜ "연구중심대학" 지향시 최우선 목적
  - ➡ 보편교육? (전공 무관) 취업? > 안정적 (고)수익? ➜ 학부(교양)과정 ➜ 최우선은 아니지만 무시못할 목적
- 안정적 (고)수익 (전문)직종의 다양화 && 이 (미래가 보이는?) 전문교육을 지역(서울대연합)대학이 감당할 수 있다면? (심지어 의료인프라까지 확충된다면…?) !!
- 신의 한 수는 없다.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심함은 필수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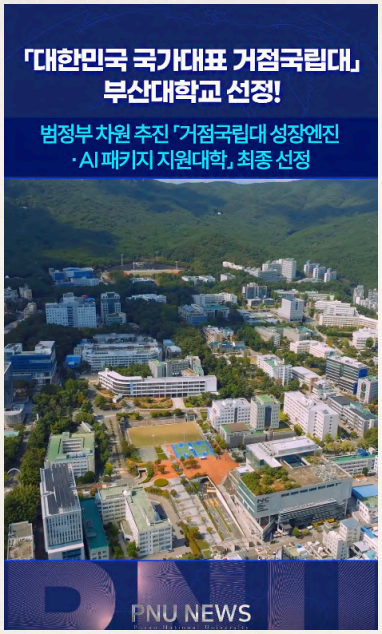
(서울대연합)지역대학의 열쇠

- '서울대' (국내)네임밸류 ➜ 희소성, 수월성 기반 ➜ 전국단위 연합대학이 되는 순간, 네임밸류 소멸
- 공동선발, 자원공유 ➜ 효과가 있을 때만(!)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는 열쇠는 아님!
- 효과란? (보편교육과) 전문교육의 성과가 수험생(학부모)에게 어필했을 때
  - ➡ 대학원 졸업 (석박사 학위) 후 안정적 (고수익) 전문직 담보 여부?
  - ➡ 학부 졸업 (학사학위) 후 안정적 취업 ➜ (고액) 사립대 대비 차별적 경쟁력 의문?
-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이 열쇠!
  - ➡ 무엇이 연구중심대학인가?
  - ➡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인가? 한국에는 연구중심대학의 선례가 있는가?
  - ➡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과 '서울대10개만들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통합국립대학의 기본구조(안)]

- 공동학위제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교수, 학생의 자유이동 보장, 상호간의 완전한 학점 인정(정교수 승진 전에 순환근무 의무화)
- 선발방식은 단일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발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의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 운영
- 입학 후 통학국립대학 내 소속대학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허용
- 통합국립대학 내의 동일 학과 및 전공 간의 통합적 운영과 협력체제 구축
- 소속대학별로 별도의 의사결정체계를 갖는 것과 동시에 통합국립대학 차원의 별도의 의사결정체계 갖춤

4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부산대학교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 ★ '28 세계 100위권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
- ★ 산업난제해결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 구축
- ★ '27 국내 최대 규모 「AI대학」 출범
- ★ 동남권 26개 대학과 교육·연구·AI 혁신성과 공유

➡ 5년간 총 5천억원 정부 재정 지원

v2026-10-27

(연구중심)대학인가? (기술)산업(중심)대학인가?

Science vs.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Knowledge (Variety)	Money (Efficiency)
Long-term	Short-term
Culture	Economy
National/Public	Industrial/Private

6

(연구중심)대학인가? (기술)산업(중심)대학이다!

Science vs.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Knowledge (Variety)	Money (Efficiency)
Long-term	Short-term
Culture	Economy
National/Public	Industrial/Private

7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총 10장 130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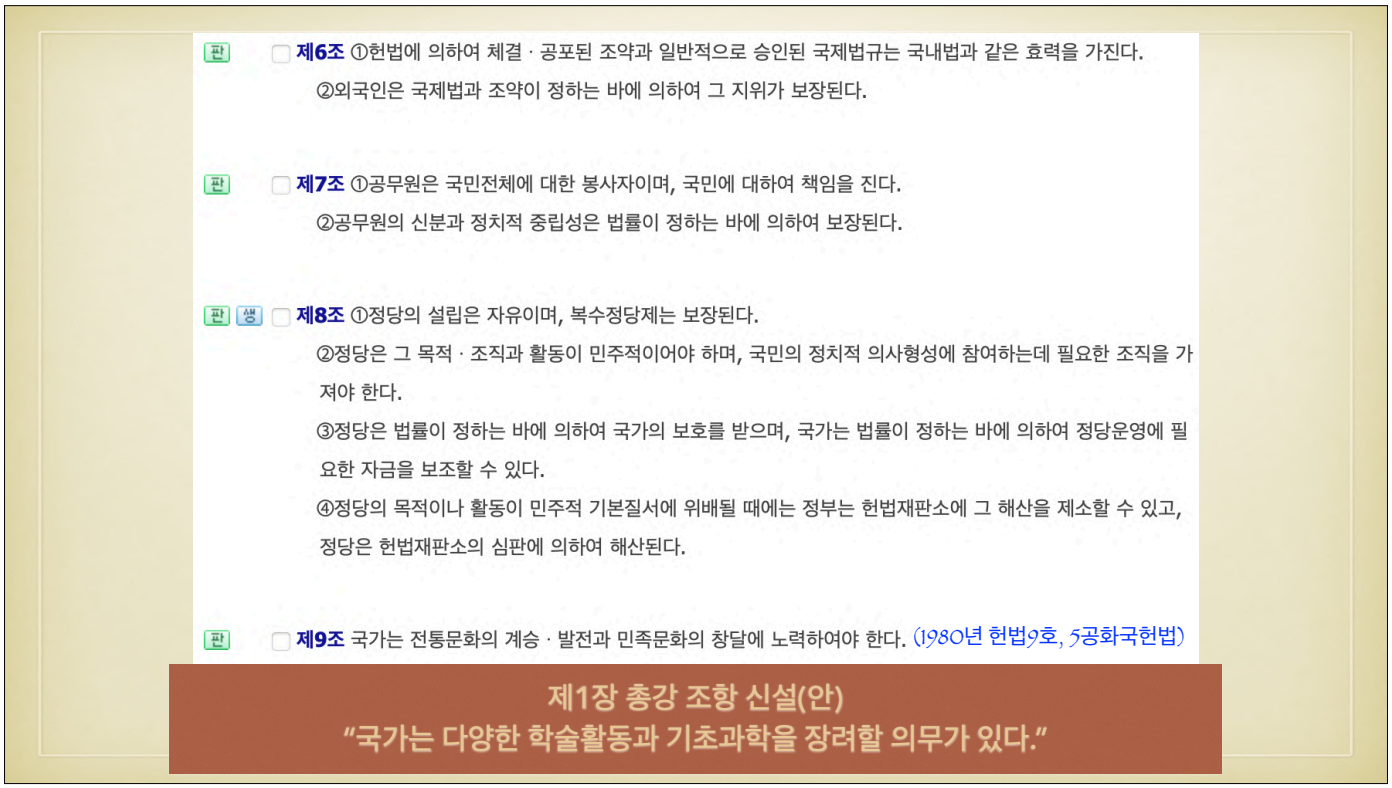
제9장 경제

판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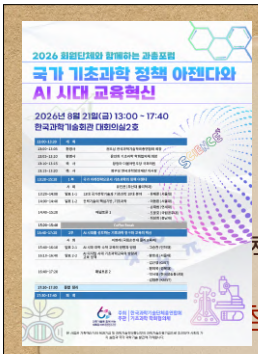
8



S10 의 현실적 목표 인정! BUT?

-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질문
  - ➡ 삼전닉스가 대학을 세우면… 입도선매 .. 서열화 .. 얼마나 오래갈까..
  - ➡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거점 (기술)산업대가 우리의 미래일까..
-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질문
  - ➡ AI와 함께 하는 인류의 미래는?
  - ➡ 무한에너지에 대한 꿈과 지구 생태계는?
- 대답해 AI 시대 ➜ 질문 없는 한국 교육 (사회) (언제부터? 앞으로도? 언제까지?)
  - ➡ 산업화 시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 ➡ 고도 산업시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10



국가적 변화 요청 (단기)

(법률과 모든 문서): 과학기술 ➔ 과학·기술 or 과학과 기술 or 과학및 기술

책 ➔ 과학정책 vs. 기술정책

첨단)과학 ➔ 국가 과학정책 아젠다로 채택 ➔ 중장기 로드맵과 투자

- 수리·통계
- 원자·양자
- 천체·입자
- 분자·나노
- 물질·에너지
- 분자생물
- 진화·종·생태
- 지질·해양·대기
- 뇌·신경·의과학

다양성 (자율성)		선택과 집중 (효율성)
논문 / 학회	지식	특허 / 재산권
전문 교육 인력		전문 산업 인력
문화적 파급효과	고등교육 (대학) 의 필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중장기 로드맵		단기 투자/성과
공공재 인프라	국가(정부)의 필요성	민간 산업 인프라
세금		기업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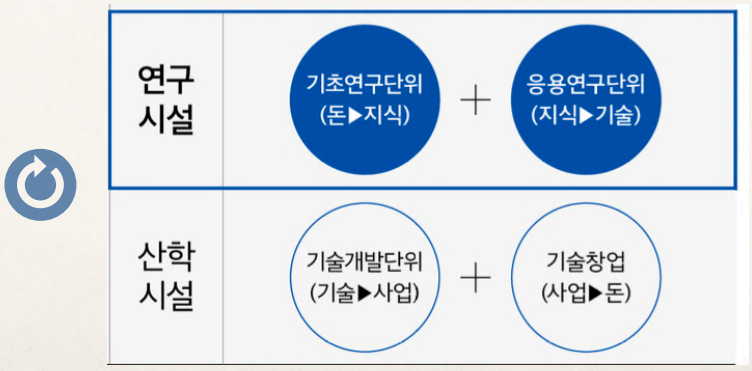
돈

11

건강한 선진 생태계의 비결 ➔ 선순환 고도화

- 미국 /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 일본 / 중국

  ➡ 국립연구소 중심 (인적/물적) 대형 연구 인프라 + (인근) 대학원 신진연구인력 ➔ (신) 기술개발 ➔ 국부 창출 ➔ 대형 기초과학/고등교육 인프라에 재투자



12

국가 거점 (기술) 산업대학 = 지·산·학

- 지·산·학 ➜ 국가거점 (기초)연구인프라로 확대
- ① 공학원-지역(특화)산업 연계 ➜ ②기초학문 (인문-사회(법학 포함)-자연(의생명과학 포함) 에 낙수효과 파급 ➜ ③ 대학 구조개혁: (국립)의대/법전원 (자격증 분야) 로 별도 분리 ➜ ④ (입시) 교육 구조 개혁
- 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 유지, 연구소는 지역 특화-융복합 중심

● 국가 거점 연구중심대학의 모델 설정

구분	설정	참고
개념 / 정의	연구(프로젝트)의 단위 연구시설 (연구실의 유기적 집합체)	교육(강의/커리큘럼)의 단위 단과대학 - 학과
	연구시설 특정 분야 연구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조직	다양한(세부) 연구실(주제)들의 유기적 결합 ❶ 연구(행정) 지원의 일원화 ❷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운영/관리 ❸ 성과의 축적과 진화
	연구 생태계 투자와 지식적 성과 사이의 공생(발전 · 순환)시스템	연구(돈▶지식)와 개발(지식▶돈)의 선순환 구조 마련 연구시설: 기초연구단위 (돈▶지식) + 융용연구단위 (지식▶기술) 산학시설: 기술개발단위 (기술▶사업) + 기술창업 (사업▶돈)
주제 / 역할	• 전지구적 · 인류적 문제에 대한 연구 기여 및 고유역할 •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수행 및 촉성화	학과전공을 넘어선 포괄적(대단위) 연구주제 : 기초-응용-융합 인류적 공통관심사로 국제공동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제
인적 인프라	• 대학 연구 인력 인프라의 기반은 (종신/계약직, 박사급, 기술직) 전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 연구시설 소속의 전임/겸임/학생 (종신/계약/학생) 연구팀으로 이루어진 선순환적 인적 인프라 • 연구소 지배/운영/의사결정구조 투명화 (운영위원회 내실화)	연구소 전임 연구인력(중 · 장기계약/종신) "리서치 펠로우" : 연구 주도 연구소 겸임연구인력(학과 전임교원) : 연구참여 + (대학원) 학생인력 공급 및 교육 박사급 전임연구인력 : 연구 전담(계약직) 학생연구인력(대학원 교육과정 수료 후) : 연구원(연구소 전용 전공 신설 포함) 연구소 전임 기술인력 : 연구 기술지원(중 · 장기계약) 연구소 전임 행정인력 : 연구 행정지원(중 · 장기계약)
물적 인프라	• 연구실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공동 활용 및 효율성 제고 • (세부/신규) 연구주제의 발굴, 논의, 공동 연구활동이 가능한 공간구조 • 홍보 및 연구진행의 효율성에 특화된 행정 · 전산 시스템 구축	행정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일원화, 간소화 공동 연구 공간 구축 및 활용 · 관리 : 교수 개인 실험실의 연구시설 공간 전환 및 공동 연구공간 활성화/효율화 (대학원생 연구실 및 휴게실)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장비 구입 - 유지보수 관리 - 공동 활용도 제고 연구 DB 구축 : 관련 인적 네트워크, 자료(논문), 성과, 홍보, 우수 연구자 유지

13

교수회 발제

• • •

권 강 교수

기획홍보위원장

01 · 핵심 메시지

부산대학교 교수회 · 기획세미나 2026

세계 100위 대학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학자에게 시간을”

비교 없는 10분, 대학의 자유

발표자: 부산대학교 교수회 기획홍보위원장 권강

부산대학교 교수회 기획세미나
2026. 10. 27. 화요일

01 / 27

02 · 핵심

02 / 27

여전히 사람에 집중한다

사람에 집중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다.
그러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중요합니다.

이유의 흐름

마음
+ 시간
→ 성장

교육과 연구 —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

03 · 학문문화

03 / 27

학문문화는
일상적인 행동방식이다.

대학의 학문문화는 **연구자들의 일상**입니다.

01

새로운 질문을 환영한다

익숙하지 않은 질문도 들어오는 자리.

02

실패를 견디고 오래 연구한다

결과가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03

자유롭게 만나고 비판한다

동료와 정기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04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지식과 경험이 사람 사이로 흘러가는 자리.

04 · 두 가지 성장동력

04 / 27

두 가지 성장동력.
비교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

전략적 성장

S10 전략산업 ·AI · 대형연구조직
집중적인 투자와 시설 확충
대학의 새로운 성장동력

더 필요한 것

자생적 학문 성장

연구자 스스로 발견한 질문
자유로운 연구와 학문적 만남
장기적인 지식축적과 후학 양성

두 동력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 **이 자리는 더 느린 쪽을 위한 투자.**

05 · 자생적 성장의 경로

05 / 27

어떻게 자생적으로 자라는가.

PNU 학문문화의 성장 과정 — 6단계

01
자유로운 만남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자리

02
새로운 질문의 발견
익숙한 답 너머의 물음

03
작은 탐색연구
가설을 시험하는 첫걸음

04
긴 호흡의 연구
해를 같이 가는 시간

05
독창적 성취
학문으로 자리 잡는 성과

06
후학 양성 · 새 질문의 탄생
다시 01로 —

사람과 질문이 만나 **새 학문**으로 자라는 경로. 참고 · UNIVERSITY OF CHICAGO · NEUBAUER COLLEGIUM

06 · 긴 호흡에 필요한 세 가지

06 / 27

시간·공간·돈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	**시간**	모든 논의의 출발점
모양이 다른	**공간**	인문사회 · 자연대 · 공대 · 의생명 · 예술체육 등 여러가지 모양
부대하는 것	**돈**	시간 · 공간에 부대하는 것

07 · 하나의 패턴

07 / 27

학계가 아닌 자리,
세기의 발견들이 태어난 곳.

A · 학계 바깥

평범한 공무원의 자리

스위스 특허청 —
대학도, 연구직도 아니었다.

B · 그러나 그 자리에서

1905, 기적의 해

특수 상대성 이론 · $E = mc^2$
광전효과 · 브라운 운동

시계 맞춤 장치 심사 중 —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아인슈타인 스스로 부른 이름 — 세속의 수도원

08 · 지금의 상황

08 / 27

밖에서 오는 압박.
본부의 두 가지 일.

미래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

01

바깥의 압박을 견딘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적 압박을
학교가 함께 견디는 일.

02

안쪽의 울타리가 된다

교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스위스 특허청'이 되는 일.

09 · 교내 '스위스 특허청'

09 / 27

교내에 '스위스 특허청'을 만든다

어렵지 않고,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약 1주일

30 만원

≈ 한 주의 스위스 특허청

약 1개월

100~150 만원

≈ 한 달의 스위스 특허청

'통제'를 멈추고 자유로운 시간을 '사람'에게.

10 · 교수님께 드리는 시간

10 / 27

지원의 범위

작은 시작에서 10~20년의 학문적 성장까지

최소

30 만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작하는 연구

≈ 자유로운 첫 탐색

중간

2,000 만원

긴 호흡의 연구 지원

3개월 ~ 1년 규모

최대

작은 학문씨앗이 10~20년의 연구로 자라나도록 지원

자율적인 탐색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는 후속지원으로 연결

참고 모델: 듀크 대학의 소규모 학문공동체 지원제도 벤치마킹

11 · PNU 학문백년 포럼 — 제안

11 / 27

학문백년 포럼

뛰어난 석학, 그리고 선진 연구제도(HHMI, NIH R35, 서경배과학재단 등) 전문가 초청 – 학문생태계 논의.

연 2회

> **“한 사람의 학문은**
> **어떻게 탄생하는가?”**

STEP · 01
강연
외부 학자의 발표

· 02
소규모
심층대화
강연 뒤 함께 묻기

· 03
자발적
학문모임
캠퍼스 안 만남으로

· 04
새로운
연구질문
한 사람의 학문

캠퍼스 안 일상의 만남과 대화 — 학문문화가 자라는 자리.

12 · 같은 논리

12 / 27

AI · AX,
같은 논리.

시간과 공간과 돈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연구한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같은 시간 · 공간 · 돈이 필요하다.

지금의 논의는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시간·공간·돈을 주는 것이다.

13 · 한 가지 원칙

13 / 27

비교하지 않기.

다른 학교가 어떻건, 다른 교수가 어떻든 —
이건 **‘내 일’**이다.

창의성의 적은, 비교.

14 · 솔직한 질문

14 / 27

연구현장에도 해당하는가?

‘연구과제’ 중심의 영역에도 같은 논리가 통하는가?
그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연구실의 연구성과가 실제로 더 좋아지는가?

의문

연구자보다 ‘연구과제’

단기적인 성과를 보면 **연구자**보다
연구과제가 중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한 회의가 정직한 출발점.

그러나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만으로는
세계적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질문**과
연구자를 키워야 한다.

참고 ·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SUPPORT PEOPLE, NOT PROJECTS.

Clarivate 고피인용 연구자 선정 — 분야별 발표연도별 상위 1% 피인용 논문을 근거로 활용.

15 · 현장의 원칙

연구 현장의 현실,
대학의 지원.

연구 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 **각각에 대학이 보완합니다.**

원칙

연구재단 연구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학이 보완한다.

참고 · U.S. NIH R35 (MIRA)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지원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속성·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다음 장에서 — 이 원칙을 **서울대 선례 → 부산대 시나리오**로 본다.

16 · 참고 — 서울대의 선례

서울대의 지원제도

연구자 성장단계별 — **부산대에서 참고할 부분.**

01 · 박사 후 단계

박사후 연구원 양성

독립 연구자로 성장할 기반 지원.

02 · 신규 임용 단계

신임교수 연구정착

연구 기반을 마련할 초기 지원.

03 · 신진교수 단계

창의·도전 장기연구

최대 9년의 성장 기간 지원.

04 · 중견·후기 단계

징검다리 연구지원

연구 공백과 세대 간 단절 완화.

네 단계 — **연구자的一生을 따라가는 시간.**

출처: 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생애주기별 연구지원사업 안내(2026)

17 · 부산대 공대에 적용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

※ 아래는 실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SCENARIO · A

상황

중요한 현상을 발견했지만,
현재 과제와 맞지 않을 때.

지원

대학이 약 2,000만 원의 자율탐색비로 6개월 검증.

의미

성공하면 새로운 국가과제의 기반,
실패해도 기존 이론의 한계 확인.

SCENARIO · B

상황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연구실을 떠나야 할 때.

지원

제한된 기간의 연결재원 지원.

의미

축적한 연구역량이
연구비 공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을 방지.

SCENARIO · C

상황

세계적인 연구실을 만들고 싶은
신임교수.

지원

연구실 정착비 + 초기 탐색비.

의미

채용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 성과를 낼 여건을 마련.

세 시나리오 모두 — **학문씨앗의 공대형 모델.**

18 · 같은 철학, 다른 실행

학문분야별
다른 설계와 지원

PNU 학문백년 프로젝트 — **학문분야별 다른 설계.**

인문 · 사회과학

독립의 시간 – 연구자의 필요에 맞춘 지원

자신의 이론을 정초할 시간.

공학 · 자연과학

연속의 시간 · 탐색 – 연구자의 필요에 맞춘 지원

초기 탐색과 연속성 지원.

의생명

기초와 임상 사이 – 연구자의 필요에 맞춘 지원

분야별 다른 시간 모양.

예술 · 체육

몸과 시간, 함께 – 연구자의 필요에 맞춘 지원

다른 시간의 모양으로.

인문·사회과학 독립의 시간 + 공학·자연과학 초기탐색·연속성 지원 등의 규모는 **별도 조사 후** 산정.

19 · 연구 → 영향의 경로

19 / 27

연구자 중심 지원이
세계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

가능한 성장 경로 — 지원금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P · 01
독창적 연구자와 질문 발굴

· 02
연구의 연속성 확보

· 03
새로운 발견과 성취

· 04
국제적인 학문적 영향력

※ 가능한 성장경로이며, 지원금이 상위 피인용 논문이나 세계 상위 연구자 선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Clarivate 고피인용 연구자 선정과 Stanford · Elsevier 세계 상위 2% 목록은 서로 다른 방법론 —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국제적 연구 영향력을 보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

논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논문이 태어날 조건에 먼저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20 · 시간, 세 가지

20 / 27

시간, 세 가지

단과대가 어디든 — 이 세 시간은 모두 필요하다.

01
연속
공대 · 자연대

기타가와 쓰쓰무 교수 — 5,000만 원 미만의 연구비를 매년 받아 하고 싶은 연구를 이어 나갔다.

02
멈춤
호흡을 끊는 시간

리처드 파인만 교수 — 성과의 압박에서 벗어나 코넬대 식당에서 흔들리는 접시를 보며 물리학을 다시 놀이처럼 탐구하기 시작했다.

03
독립
인문사회

존 롤스 교수 — 1958년 제시한 정의의 원리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1971년 자신의 철학체계를 담은 『정의론』을 완성했다.

21 · 함께 지키는 일

21 / 27

세 종류의 시간을
알아차리고, 지키는 연습

한 사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연습한다.

네 가지 동사 — 같은 시간을, 다른 시선으로

알아차리고·**확보하고**·**유지하고**·**수호한다.**

학생들도 서로 이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만의 문화로 발전시킨다.

바깥의 바람이 창문을 때려도, **안쪽의 시간은 우리가 지킨다.**

22 · 학생들의 시간

22 / 27

독서대학

과제와, 인터넷과, 취업에서 **벗어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루 10분 또는 30분

학문씨앗을 심는 작업이다.

'학자가 자신의 시간과 사유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다.

비교가 **있는** 삶

비교가 없는 삶

23 · 발췌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23 / 27

사고의 깊이, 속도가 아니라.

그린필드 · 2009 사이언스 · 50건 이상

시공간적 능력은 발달시켰으나,
의식적 지식 습득 · 비판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처리 능력**은
약화시켰다.

스탠퍼드 · 2009

활발한 멀티태스킹

산만해지고,
작업 기억 제어와
집중력이 뒤떨어졌다.

"온라인의 습관은 오프라인에서도 시냅스에 영향을 준다."

24 · 제안의 전환

24 / 27

2026년10월 27일의언어

제안의 **전환**을 말합니다.

출발

부산대는 이미 우수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세계적인 학술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환

좋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을 넘어,
새로운 연구과제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연구자를 키우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

더 뛰어난 연구성과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이전 단계**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25 · 실행 로드맵

25 / 27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2027~2031 로드맵.

01	02	03	04	05
2026 년 말	**2027** 시작	**2028 ~ 29**	**2030**	**2031** 이후
기존 제도 · 연구자 수요 조사 재원 · 운영주체 협의	학문씨앗 · 긴 호흡 연구지원, 학문백년 포럼 시작	연구활동 검토, 자율연구 지원 개선, 학문공동체 확대	장기 성과 · 지원 공백 평가, 지속할 제도 선정	대학 자체재원과 규정에 기반한 안정적 운영

다섯 단계 — **성과가 아닌 조건부터 세우는 시간.**

26 · 마무리

26 / 27

결론

우리 학교 발전의 핵심은 ~~돈도 사업도~~ 아니다.

구성원들이 하루 10분이라도 인지부하를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운

세계적인 대학의 학문문화는 100위에 오른 뒤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쌓아 온 결과 — 세계적인 대학이 됩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 기획세미나 · 2026. 10. 27.

감사합니다

MEMO

MEMO

MEMO